

[C3] 2017 Wellness Symposium

Personal Wellness: Indicator, Behavior, QoL

2017 웰니스 심포지엄

4월 14일(금), 14:10~17:20 / Rm.318

최근 건강 증진을 위한 소비자들의 요구와 기대의 변화는 치료에서 예방 및 건강관리로 헬스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. 또한,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개인의 신체 활동 및 일상 생활 등을 정량화하고 기록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웰니스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. 개인 맞춤형 웰니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의 신체 및 일상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,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행동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.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개인 맞춤형 웰니스를 활성화 하기 위한 산/학/연의 시도들과 사례들을 공유하고 미래 전략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.

Speakers

14:10-14:40 Amway's Approach to Holistic Wellness: Making Wellness Attainable Through Science, Products, and Services

Kathryn M. Armstrong, Ph.D., Access Business Group, USA

14:40-15:10 보건산업분야 웰니스 평가표 개발 및 산업 적용 사례

김우선 수석연구원 건강노화산업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

15:10-15:20 Session Break

15:20-15:50 4차 산업과 웰니스 테크놀로지

이기원, 교수, 농생명공학부 식품생명공학 및 바이오모듈레이션 전공, 서울대학교

15:50-16:20 맞춤형 화장품과 웰니스 솔루션

김주덕, 교수, 성신여자대학교

16:20-16:50 인센티브 기반 웰니스 프로그램과 행동 변화

김치원, 원장, 서울외이즈요양병원

16:50-17:20 유전자 분석과 웰니스 솔루션

강병규, 대표, 제노플랜코리아(주)